

교통사고 다발 원인 교통량 도로 구조 차선 부족

광주 교통사고 가장 많은 곳 대책 마련 시급

서구 광천사거리·운천저수지 앞·전남우정청 앞 '최다' 교통량 예상 못한 도시 계획 아쉬워...정비 서둘러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교통량이든 도로 구조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 광천사거리(신세계백화점), 상무지구 입구(운천저수지 앞), 무진교(전남지방우정청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지역에서는 각각 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발구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동쪽(57건)→남구 주월교차로·동아병원 앞(56건)→쌍촌역 사거리(48건)→광산구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47건)→북구 운암사거리(46건)→서구 농성역 사거리(44건)→서구 화정역사거리(43건) 순이었다.

교통사고 다발구역 상위 10곳에서는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8169건)의 6%에 달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와 광산구, 북구가 각각 1곳이었다.

이처럼 교통사고 다발구역 상위 10곳은 모두 교통량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교통량 과다는 결국 차량정체로 이어지고 운전자들의 무리한 끼어들기와 신호위반, 꼬리물기 등이 발생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간의 경우에는 도로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 광천사거리의 경우 광천종합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과 터미널 이용객 하차장에서 빠져나와 좌측 차선으로 이동해 광천교 방향, 동운고가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차량

들과 무진대로를 지나 신세계 백화점 입구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우측 차선을 타려는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전문가들은 광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빠져나온 차량은 좌측으로 가려하는데 신세계백화점 입구로 가려는 차량들은 우측으로 가려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도적으로 한 개 차선을 증설해야 원활한 교통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구간의 차선 증설 건의는 출골 요청됐지만, 인도를 줄이면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줄어들다는 이유로 증설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무진교 동단(전남지방우정청 앞) 구간은 차선 부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것으로 지적됐다. 무진교 동단 부근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이 곳을 오가는 교통량에 비해 차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통경찰 관계자는 "교통량을 예상하지 못한 아쉬운 도시계획이다. 교통량은 광천종합터미널과 기아자동차 광주광장을 지나는 무진대로나 비슷하지만 차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신호체계 조절로 한계가 있다"며 "대로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항상 막히는 곳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남구 주월교차로·동아병원 앞은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광주지역 대표적 '혼잡 교차로'로 꼽히는 곳으로 지난해 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매년 도로교통공단, 경찰청과 함께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횡단보도 앞 노란발자국 22일 광주시 북구는 동운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노란발자국·노란정지선'을 설치했다.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때, 노란발자국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라는 의미로 문인 북구청장과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 이창근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광자 동운초등학교장 등이 망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18곳 초고압선 지난다

송전선 지중화 비율 광주 42.9%·전남 5.5% 그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포츠클럽 내 초고압선이 공중으로 지나가는 학교가 광주·전남에만 20곳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화 비율도 전국 하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5만4000 볼트 이상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광주와 전남지역 학교의 수는 모두 18곳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는 광주 북구 연제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곳이, 전남에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으로 나타났다.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율도 낮았다. 전

북대 등의 지중화 비율이 89.6%를 기록한 서울과 대비해 광주는 42.9%에 머물렀으며, 전남은 교차 5.5%에 그쳤다.

지중화 작업에는 한국전력과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역 특성상 지중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스포츠 클럽 내 거미줄처럼 얽힌 고압선과 담장을 침범한 전선주는 전차파 노출,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다"며 "사·도교 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전차파 측정, 안전시설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중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남구, 선별 진료소 옛 보훈청으로 이전

26일부터 진료...근무환경 개선 차원

광주 남구청 정문에 위치한 선별 진료소가 옛 보훈청 건물 1층으로 옮겨 오는 26일부터 코로나 관련 진료 업무를 진행한다.

이번 선별 진료소 이전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고, 선별 진료소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검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또 구청에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남구청 정문에 선별 진료소 이

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내건 상태이며, 관내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선별 진료소 이전 안내 플래카드를 배부해 관내 주민들에게 이전 소식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별 진료소 이전 장소인 옛 보훈청 건물을 찾기 위해서는 구청 맞은 편에 위치한 국제비즈니스호텔 언덕 방향으로 걸어서 방문하거나, 차량 방문시에는 백운광장에서 분선동 방향으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3번째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해 언덕위로 올라가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 시대, 광주교육 희망을 품다

시교육청 27~29일 온라인 포럼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7~29일 '코로나 시대, 광주교육 희망을 품다'를 주제로 '2020 광주교육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 1차 포럼(27일) ▲ 2차 포럼(28일) ▲ I.D.E.A(인공지능시대 교육데이터 혁신 포럼)(29일) 등 3회에 걸쳐 실시된다.

1차 포럼에서는 전남대 이두후 교수가 '코로나 시대 광주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광주과학기술원 SI 대학원 김중원 원장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교육 구상'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해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진 후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차 포럼에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시대, 광주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기후행동네트워크 조길에 대표가 '기후 위기에 관한 진실, 그리고 학교가 실천해야 할 기후 행동'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 우리 교육의 실천 과제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진 후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와 함께 진행되는 I.D.E.A. 포럼은 '교육 빅데이터의 활용과 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주제 발표 후 유튜브를 통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공제조합 광주사업소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2020. 8. 1부터 독립된 지부로 승격하여 새 출발합니다.

화물공제조합 경남지부
광주사업소
(2007. 9. 1 ~)

화물공제조합
광주지부
(2020. 8. 1)

- 광주지역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
- 광주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공제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광주지부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옥상



대구화물협회 부회장 김동석, 인천화물협회 부회장 심재선, 대전화물협회 부회장 김기승, 전남화물협회 부회장 백종기, 서울화물협회 감사 신해수, 울산화물협회 감사 김영기, 경기화물협회 감사 고달원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최경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경석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신훈, 강원화물협회 이사장 전수산, 충북화물협회 이사장 민경현, 충남화물협회 이사장 최일운,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양봉식,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김화일,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고영철,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강성일, 세종화물협회 이사장 임영수,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 서훈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